

장애인전용구역 불법 주차했다간 스마트폰 민원신고에 ‘딱 걸린다’

광주 도입이후 작년 신고 급증 과태료 부과도 크게 늘어 “무단투기 등 대상 확대를”

3611건(2013년)→7922건(지난해). 이는 지난 2년간 광주지역 각 구청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주차위반 신고건수다. 최근 스마트폰 민원신고제도 도입 이후 대다수 구청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신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선 주차위반을 했다간 스마트폰 신고에 10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곧장 날아들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다. 일각에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신고 대상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무단투기·도로파손·밤샘차고지이탈차 등으로 대폭 확대·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각 구에 따르면 지난해 각 구청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건수는 모두 7922건으로 지난 2013년 3611건 보다 119.4%(4311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북구가 1575건→4208건(167.2%)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광산구 1060건→2196건(107.2%) ▲서구 537건→981건(82.7%) ▲남구 342건→443건(29.5%) 등이다.

이 같이 민원신고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3년 초부터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인 스

마트폰 신고제도 때문. 기존엔 현장사진을 찍고 인화한 뒤 직접 구청에 제출했는데,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사진을 촬영한 뒤 바로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민원 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또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 등과 함께 접수된 민원신고는 진술 등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명확한 증거가 있는 만큼 과태료 부과도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지난해 각 구청 과태료 부과건수는 3063건으로 지난 2013년 1841건보다 1222건(66.4%) 늘었다.

구별로는 ▲서구 644건→1052건(63.4%) ▲남구 246건→313건(27.2%) ▲북구 70건→534건(662.9%) ▲광산구 784건→1070건(36.5%) 등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실태

■신고 건수
2013년 3611건 → 2014년 7922건

■과태료 부과 건수
2013년 1841건 → 2014년 3063건

과태료도 1억5988만 원에서 2억6086만 원으로 1억98만 원 더 징수됐다.

일각에선 생활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는 물론 현장 사진까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구청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한 만큼 스마트폰 민원신고 대상을 더욱 확대하거나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무등산 원효사지구 교통체증 불편 해소” 광주시, 유관기관과 합동개선대책 마련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지구 진입로 교통체증 보도(광주일보 1월 19일 6면)와 관련, 북구청과 북부경찰서·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북구 금곡동 풍암제 인근에 추진 중인 풍암주차장 건설사업을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 뒤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운

행 횡수를 늘릴 계획이다.

시는 또 총장사~원효사지구 주차장 구간에 광주지방경찰청과 북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통지도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한편 주차 관리요원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교통대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2만건 허위 신고한 7명 경찰 처리 놓고 ‘골머리’

정신질환에 어려운 가정형편 민·형사 책임 묻기 힘들어 수자원공 폭발물 장난신고도

경찰이 허위·장난 신고를 일삼는 상습 허위 신고자 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2년여간 상습 허위 신고자로 파악된 7명이 광주지방경찰청에 신고한 허위·장난 신고가 2만건에 달하는 데도 이들 대부분이 책임 능력이 없는 탓에 형사·민사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서부경찰은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본부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한 전모(여·58)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훈방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광주 모 방송국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수자원 공사에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군당국 관계자 등 20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국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은 8시20분께 전씨가 최근 2년여간 4700여차

래의 허위·장난전화를 일삼았던 사실을 확인하고서 허탈감에 빠졌다.

문제는 전씨를 비롯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7명의 상습 허위신고자가 최근 2년여간 경찰에 허위신고로 한 건수가 무려 2만2791건인데도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다는 것.

전씨 등 7명 대다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정 형편이 곤란한 탓에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려 해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도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전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가족으로부터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는 약속을 받고서 결국 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허위 신고자 7명이 2만건이 넘는 허위 장난신고를 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다수가 민·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어, 경찰로서는 가족에게 치료를 당부하거나 상습 신고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선장 등 7명 자발적 출석...유족들 “진실 반드시 밝혀주세요”

세월호 항소심 첫 재판 부실 구조 해경 정장 재판도 “지금도 해경만 보면 화난다”

‘진실을 밝혀주시시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선원들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부실한 구조 활동에 대한 해경의 책임을 묻는 재판도 진행됐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 등은 진실을 밝혀줄 것과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광주교법 형사 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이준석(69)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정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정장을 정리한 뒤 본격적인 공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이 선장을 비롯, 7명이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주요 정점에 국한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항소심 최대 정점에 대한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1심 때 무죄가 선고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과거 이 선장의 인터넷 내용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해양분야 전문가 등의 증인을 불러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1심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한 퇴선 명령에 대해서도 무전기 제조사 관계자, 이 선장이 해경에서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일시적으로 진술했던 당시 조사자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첫 공판기일을



20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재판에 참석한 이준석(왼쪽) 선장이 눈을 감은채 피고인 석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시작으로, 2주에 한번 꼴로 5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4월 28일 선고한다는 진행 계획도 공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이날, 부실한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전 목포해경 소속 123정 정장 김경일(57) 경위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법정

속 기소된 김 경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 참석한 세월호 참사 당시 화물차 기사들은 “지금도 해경만 보면 혈압이 오른다”면서 “해엄쳐 나오는 사람이나 구조하고 누구 한 사람도 선실로 뛰어들어가 구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검찰의 기소 취지 진술에 이어 김 경위는 변호인을 통해 “과실범으로, 승무원, 정해진해운·고박업체 관계자, 운항관리

자들과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향후 정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또 “눈에 보이는 승객 구조에 급급해 퇴선유도 방송을 못 했지만 방송을 했더라도 제대로 전달됐을지, 전달됐다면 배가 상당히 기온 상황에서 승객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지 의문”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일당 2만원 빼돌린 작업반장 우연히 만나자 주먹 휘둘러

○...1년 전 자신의 일당 2만 원을 빼돌렸던 작업반장을 우연히 만나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른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2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선모(52)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 혼자 낚시를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선모(63)씨

에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이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선씨는 경찰에서 “먹고 살기 힘든 형편에 일당 4만 원에서 절반이나 속어 때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는데, 우연히 마주치자 예전 일이 떠올라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앞(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 3중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 3중(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문화와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1. 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2. 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3. 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4. 사무실임대 치평동 우리은행위 학원, 모든업종가 50평, 고정주차있음 시설비, 리모델링 2천 60만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1. 기본 경매 강의
2.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 오전10시~오후 7시
☎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1.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2.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3.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4.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5.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6.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7.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8. 남구 서동 (토 306㎡, 건 90.18㎡)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9. 광산구 소촌동 (토 400㎡, 건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임야

1. 북구 매곡동 토지 451 감정 1억1천, 최저 7천8백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